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3.22.(화) 오후 3시~4시20분,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석 위원 : 권혁남위원장, 박찬재부위원장, 정의식, 문해주,

이현숙, 유환익, 정경모, 김희중위원 등 8인(김세한, 천경숙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4월 일정 : 4월 26일(화) 오후3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

- 2월 1일 방송된 '뉴스 18'(18:00~19:40)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3.9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국민의 힘이 곽상도 의원의 자진사퇴로 재보선을 치르게 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한데 이어, 기자가 "하지만 곧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돼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냅니다. (중략) 이에 국민의 힘은 김최고위원을 겨냥해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3.9 재보궐 선거에서 탈당 후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 후 복귀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입장과, 무소속 출마 후 당선되더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만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확인 결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월 30일(일) 저녁, SNS를 통해 대구 중남구 지역구 출마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합뉴스TV는 1월 30일 '뉴스 21' 프로그램 (21:00~22:00) 및 후속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힘 김재원, 대구 보궐선거 출마의사 철회> 제하의 보도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를 이미 소개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2월 1일 보도에서는 김최고위원이 계속 출마할 것으로 다르게 보도하여 혼선을 일으켰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설 연휴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리포트였습니다. 방송되기 상당한 시일 전에 제작이 된 거고요, 중간에 김재원 의원이 출마를 번복하는 바람에 내용의 변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1차적으로는 리포트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해당 기자의 문제고요. 그리고 기자뿐만 아니라 그 리포트를 데스크했던 데스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정치부 관련 기자와 데스크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희가 주의를 썼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휴가, 귀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지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 <02.28 [단독] "북판교 아파트 반값에"...또 '분양사기' 우려> 아파트 반값 분양이라는 전형적인 분양사기 형태를 고발한 보도로 심층적인 사실 검증(땅을 100%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땅 주인은 판적이 없다는 인터뷰, 개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민간에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지자체 관계자의 인터뷰)을 통한 단독 보도로 매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도하여 점점 교묘해지는 분양사기를 고발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한 분양사기에 대한 경각심 높였던 보도로 타 방송사보다 한 걸음 더 뛰는 연합뉴스TV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03.02 [단독]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수당?...가입금도 일부만 환불> 통해 해당 조합이 조합원 모집 시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금 환불도 70%만 되는 등의 분양사기 우려에 대한 추가 취재 후속 보도가 이어짐으로써 부동산 분양사기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인 조합원이 이미 320여명, 9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03.02 러시아 7개 은행과 거래 중단...러 국고채 투자도 금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을 공식 표명하고 우선 러시아 주요 은행들, 또 이들의 자회사와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동 방송시간은 총 1분 57초로 방송화면 중 방송 시작 1분 23초부터 약 1~2초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작은 글씨라 모르고 지나쳤으나 주변의 몇몇 지인들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영상을 캡처하여 확대 확인하니 해당 부분에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작은 글씨이지만 시청자들이 볼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후 방송 시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뒤늦게나마 부적절한 부분을 인식하고 화면을 수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부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화면 하나하나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아파트 분양 사기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사기 행각들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피해가 없도록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보도 때 자료 영상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확인을 해보니까 모니터상 채팅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영상 편집 담당을 하는 분이 작은 글씨지만 시청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잡아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영상편집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문해주 위원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의식) 북한은 대선 전 두 차례(2.27 / 3.5)에 걸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선을 앞둔 매우 긴박한 시점이고, 국제적으로

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미묘한 시점으로서 시기를 교묘하게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정부나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도 북한 당국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ICBM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이를 규탄하였으며, 미국은 러시아 개발자에 대한 제재를 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연합뉴스TV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안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난 1월(7회 발사)처럼 세부적인 종합분석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프라임에서 2회(3.11 / 3.14), 한반도브리핑에서 1회(3.12) 전문가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이번 발사의 의미와 파장, 미사일 제원에 관한 사항 등 상세 분석하고 앞으로의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한 내용이 좋았습니다. 다만 대선정국으로 국민들의 관심사와 뉴스거리가 넘치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종합 분석보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9차례나 발사한 보도 내용을 볼 때 성능이 나날이 발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도발 횟수가 더욱 늘어나고 강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의 북한 위협과 안보 인식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포함) 개발 및 발사 일지와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기획보도 또는 TV 토론 등)해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좋겠습니다.

- (과학의 달과 관련 기사) 4월은 과학의 달이고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계의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에서 각종 행사나 전시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과학의 날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새 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는 만큼 연합뉴스TV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보도해주길 희망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북한 미사일 발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전 발사 때는 저희가 다양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선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하고 종합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인 보도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과학의 날, 과학의 달 관련해서 과학 쪽의 기획이라든가 집중적인 보도를 당부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 정부도 과학기술 정책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4월 과학의 날을 맞아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과학 팀이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의식 위원

- 반려동물에 대한 보도 2/15 9:30, 반려동물이나, 동물학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장 후 범죄를 저지를 범죄 성향으로 될 확률 등에 대한 사례(국외 및 국내)에 대한 취재를 하여, 동물 학대

예방 정책을 통해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풍경여지도 3/2, 유네스코 등재 문화제 스페인편을 보았습니다. 혹시 연합뉴스에 한국판 유네스코 문화제를 소개할 경우, 영어 자막도 같이하여 제작하면, 나중에 외국에 소개할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3월 17일 밤 11시쯤,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 및 의사 부족으로 소아 응급 진료 공백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는 당연히 소아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진료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 갖고 양성 환자만 보는 데도 있고 음성 보는 데도 있고 열나면 무조건 음성 양성 가리지 않고 안 보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응급산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 규모가 많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반쯤에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목사 부인인데 수일 내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로 다 돼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진통이 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양성이 나왔더라고요 양성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잘 방법을 모르겠다고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국립중앙의료원에 양성 환자만 이제 보는 바람에 그걸로 연락해서 이런 케이스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입원해서 곧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큰 문제없이 잘 태어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한 달 반쯤 됐는데 2주 전쯤에 또 하나는 코로나 양성인데 28주였어요. 각자가 방역 철저히 하고 사람 단체 만나는 것도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연락 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서 이거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음 달에도 한 분도 코로나 안 걸리고 무사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동물 학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없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를 풍경 여지도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문제 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코로나 만연에 따른 응급 환자들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료 공백은 없는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라도 시청자분께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나 경제부 쪽에서 검토를 해서 리포트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숙 위원

-도념은 '2030 젠더 갈등'...'정치권 책임'(2022-03-14), "성범죄·무고죄 처벌강화" 공약...피해자 위축 우려도(2022-03-15)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표심을 얻기 위해 화합보다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투표 결과에서 표로도 나타났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사회의 숙제로 던져진 가운데 그 책임의 정치권에 있음을 제목으로 드러낸 시의 적절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분42초 분량으로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에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고 취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성평등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각자의 경험이 달라 서로 차별받는다 느끼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 특정플랫폼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표출되는 의견이 청년들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용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여성 대표성 확대·노동 성별격차 해소"...여성의 날 기념식 ; 여협(2022-03-09) 세계 여성

의 날...곳곳서 폭력 규탄·양성평등 촉구(2021-03-09) 매년 3월8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로 전 세계에서 여러 행사가 개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여성의 날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쟁점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의 날이 갖는 의미가 특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TV는 국내에서 개최된 여성의날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만을 보도하고 다른 나라의 행사들을 보도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린 여성의날 행사와 함께 한국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고 어떤 이슈를 이야기했는지 함께 보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번 대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별에 따른 갈등 문제, 특히 20~30대에서 아주 극명하게 표로까지 연결돼서 드러났습니다. 언론으로서 저희는 당연히 성별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갈등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해결책 마련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대다수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처럼 보도하는 문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그게 손 쉬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뚜렷한 목소리가 그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기 때문에 취재하는 아 이템에 맞춰서 반응을 쉽게 딸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일반적인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자칫하면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여성의 날 문제는 하필이면 대선 전날이어서 특히 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해외 여성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여성의 날 행사도 자세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코로나 확진자 개인보호 자제 필요> 지난 3월6일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확진...오는 12일까지 재택치료" 제목으로 홍 부총리의 코로나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음, 홍 부총리가 비서실에 유증상자가 발생한 뒤, 코로나19 간이진단 및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판정 받았다는 내용과 특이사항이 없고 자택에서 격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앞서서 김부겸 총리도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음, 코로나가 전세계적 이슈이고 국민들 주요 관심사항이기는 하지만 하루 수십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코로나 감염소식을 뉴스에서 상세히 보도해야 하는지 의문시 됨, 정부부처 장관이 비록 공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감염 여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화면 구성 단순화 필요> 현재 연합뉴스TV의 뉴스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뉴스제목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연합뉴스TV로고와 확진자 현황판, 그리고 아래 자막으로 뉴스코너 이름, 인터뷰나 뉴스의 내용의 자막이 있고, 맨 아래 시계 및 뉴스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되어 있음, 한 화면에 주요골자, 확진자 전체 현황 및 지방별 현황, 뉴스코너, 인터뷰이 정보, 뉴스내용, 시간, 날씨, 기타 뉴스 등 9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지고 메인 뉴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의 화면구성을 했겠지만 좀 단순화하여 메인뉴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확진자 현황은 과감히 지우고, 기타 뉴스 자막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형식이 아니고 스크롤 방식

으로 잠시 멈췄다 사라지는 형식, 시간대별로 화면 구성을 달리하는 등의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란 측면에서 충돌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특히 장관급의 코로나 확진의 경우는 저희는 개인의 사생활 면보다는 해당 장관들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서 공개를 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면 장관들의 경우 개인의 확진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특히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각 부처 주요 인사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컨트롤 타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저희가 해왔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쪽 그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화면이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상파들이야 뉴스를 할 때는 화면 구성이 복잡해지지만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예능 프로할 때는 복잡한 화면 구성을 하지 않죠. 온전히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요. 종편이라든가 저희 경쟁사인 YTN도 보시면 뉴스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메시지를 많이 담아보려는 욕심이 들어가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꼭 필요한 정보인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단순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정경모 위원

이달도 문화연예면의 많은 뉴스들이 다루어졌고 깊이 있는 보도들도 많아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위해 수고하신 보도국과 취재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달에 있었던 많은 보도 중에 특히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식계도, 할리우드도 러시아 보이콧 동참' (2022.3.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희생자만 수천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난민만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는 미사일공격과 폭격으로 거의 폐허가 되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단전과 단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IOC나 FIFA 등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의 스포츠경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음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소에 친 푸친 성향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던 세계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 등도 연주가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보도는 이러한 배경 하으로 클래식계나 전세계 영화의 본산인 할리우드에서도 러시아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카네기홀 무대에 대타로 선 조성진에 '기적 같은 연주' 찬사"라는 헤드로 연합뉴스에서 3월 1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이후 출연이 취소된 러시아 연주자의 대타로 지난 2월 25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선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해 미국 언론이 찬사를 보였다"고 보도하며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숙련된 음악을 들려줬고, 기적같은 연주 솜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진은 클래식계의 BTS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고 특히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은 모든 연주자의 꿈과 같은 무대입니다. 이번 연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연주로 충분히 화제가 되고 뉴스밸류가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매체에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

쉽습니다.

- '시대의 지성'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별세 (2022.02.27.), '시대 어둠 새벽으로 이끈 선각' ..故 이어령 전 장관 영결식(2022.03.02.)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의 별세 및 영결식 관련 보도입니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고인을 기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래는 2월 27일자 연합뉴스TV 보도내용입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1933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 명예교수는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문학평론가와 언론인, 교수 등으로도 활동한 고인은 우리 시대 대표 석학이자 최고 지성으로 불렸습니다.'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비롯해 '이것이 한국이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 '디지로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등 많은 저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암이 발견돼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이 명예교수는 항암치료 대신 '한국인 이야기' 등 저서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후략) 아래는 2월 26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인은 6공화국 때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1990년 출범한 문화부의 초대 장관에 임명됐다. 문화예술인으로는 처음으로 문화부를 이끈 고인은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전통공방촌 건립, 도서관업무 이관 등 4대 사업으로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대본을 집필했던 고인은 개막식에서 '굴렁쇠소년'을 연출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조시(弔詩) '영전에 바치는 질경이 꽃 하나의 의미'로 추모하고 국가장의 유족 측 장례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0)를 비롯해 '축소지향의 일본인'(1984), '이것이 한국이다'(1986), '세계 지성과의 대화'(1987),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1997), '디지로그'(2006), '지성에서 영성으로'(2010), '생명이 자본이다'(2013) 등 수많은 저서를 펴냈다. 그는 '디지로그'를 통해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세상을 말하며 비빔밥과 같은 우리 문화와 정서에서 조화의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략) 두 기사를 비교한 이유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의 양이나 깊이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뉴스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취재인력의 부족, 보도시간의 제약 등 불가피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시청자들은 보다 깊고 폭넓은 기사, 차별화된 보도를 보고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조성진 카네기공연 이 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었죠. 스포츠문화부에 경위를 알아보니까 관련 영상을 못 구했다고 그래요. 관련 영상을 구하지 못하니까 사진이라든가 예전 자료 영상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색하다고 판단이 돼서 리포트로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뉴스 밸류가 있는데 영상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는 1분 반이나 되기 때문에 영상이 없으면 사진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신은 짧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이라든가 자료 영상으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어령 전 장관 부고 관련해서 리포트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리포트 내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스포츠문화부에서는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3천 자가 넘는 긴 연합뉴스 기사와 1분 반짜리 연합뉴스TV 리포트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입니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리포트 내용이 너무 단신 같았다는 거예요. 약력 위주로 건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포트라면 단신과는 다르게 강조점이 있어야 되고, 시청자 눈길을 끌 만한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건조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이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이 유독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지지율이 출렁거리거나 심지어 1, 2위 후보가 교차 되는 현상도 여러 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론조사가 곧 민심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거치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연합뉴스TV가 제기하고 나서 상당히 신선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 3.11일 보도된 '여론조사 신뢰도 추락, 엇나간 민심 측정 왜?'라는 리포트(서혜림 기자)인데요. 대선 직전 많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거나 오차범위 안이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의 승부여서 당락을 맞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격차는 실제와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지지층의 참여도가 높은 자동 응답과 전화면접 같은 조사방식의 문제점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조사기관이 난립해 조사 결과의 편차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심지어 대선판의 '플레이어'로 행세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야기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계식, 나열식 보도를 지양하고 조사 방법과 표본 특성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정교한 언론보도까지 주문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대선 직전인 지난 3.6일 방영된 연합뉴스TV 스페셜 218회 '초박빙 대선 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의 후속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론조사 홍수 속에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또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역사에서부터 공표금지 같은 다른 나라의 여론조사 실태 그리고 언론의 경마식 보도 태도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 내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없는 민주주의 있을 수 없다'는 취재원의 인용을 들어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3일 앞두고 프로그램을 방영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짚고 왜곡되지 않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다는 점과 대선 이후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는지를 파악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경마식 언론보도 태도도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민심을 투영하기보다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보도였고, 대선직후 즉시 여론조사 결과까지 추적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이유있는 비판은 반드시 시정되어 민심의 왜곡은 물론 상향식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번 대선에 여론조사가 특히나 많았고 조사 기관에 따라서 오락가락 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좀 헷갈리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 보도했죠. 차후에 대선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때에는 조사 방식이라든가 조사 기관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선별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해야 할 대목 같습니다.

▲ 김세한 위원(서면제출)

-3월 9일 대선일 '개표방송' 등 아쉬워,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9일 개표방송은 각 방송사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경쟁을 했는데, 연합뉴스TV의 방송은 타 방송사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동시 출구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JTBC의 경우 독자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해 투표가 끝난 7시30분 결과를 발표(물론 예측은 빗나갔지만)한 반면, 연합뉴스TV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개표 결과를 전달한 방송 중에는 위 첫 번째 사진처럼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자가 비행기를 타고 각 지역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구현해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모습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그래픽이 1차원적(위 두 번째 사진)이어서 타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신선한 느낌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개표가 시작된 뒤 다른 방송사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가나 각 당의 핵심인사들을 패널로 초대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방송된 반면, 연합뉴스TV에 초대된 패널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사들(위 세 번째 사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인 것처럼 느껴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나 주요 패널들의 타 방송사 우선 출연 의사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겠지만 조금 더 공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심층보도 부족, 3월 10일 새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석간신문이나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체로 지면 한 면을 할애해서 윤 당선인의 출생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의 일대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유력후보였던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뒀던 기사였을 것입니다. 다른 방송사들 역시 윤 당선인이 걸어온 길을 의미 있는 과거 현장영상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의 경우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10일 새벽 5시34분 <'강골 검사'에서 대통령으로...윤석열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의 뉴스(2분10초 분량)를 한 번 내보냈고, 같은 날 오전 11시20분 <[자막뉴스]강골 검사'에서 대통령으로...윤석열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을 코너만 바꿔서 다시 그대로 방송한 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당선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나 검사 시절 의미 있는 수사 사례 등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담은 뉴스를 미리 준비했다가 보도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수처 첫 기소 사건 단독보도, 3월 1일 보도된 <[단독] 공수처 공심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1호 사건> 기사는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던 공수처가 처음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실제 공수처는 3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기소가 이뤄지기 열흘 전에 미리 공수처 내부에서 이뤄진 공소심의위원회 결과를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기자의 취재력을 보여준 기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천경숙 위원(서면제출)

-3월 4자 오후 10시, 학폭 예방·스쿨존 단속...새학기 안전활동 전개 새 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 폭력과 학생 교통사고입니다. 경찰은 최근 증가하

는 학교 폭력 유형에 맞춘 예방활동을 벌이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난 5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를 살펴보니, 학년이 낮을 수록 사상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40.4%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서영 /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초등학생 보행자 사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오후 2~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교 시간대에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 경찰 관계자는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월 신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관련 뉴스가 1건밖에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1건의 뉴스 내용이 시청자가 이해하기 편리하게 학년별 보행사고의 막대 그래프 처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넣어 방송을 해서 좋았습니다.